

# 자원 극대화 · 일자리 창출 주력

진안군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소득 증대, 최상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을 만들기 위해 올 한해 총 146억원을 투입해 산림가치 증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 ▲밀원수림 조성 등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진안군은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경제·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13억1600만원을 투자해 301ha에 67만8,000본의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는다. 특히 밀원수림 100ha를 조성해 산주와 양봉농가 소득증대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편백나무 등 경제림·큰나무조성 171ha, 뽕나무·헛개나무 등 특용수 조림 30ha 등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숲의 가치증대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군은 산림의 생태 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2006년부터 지속 추진해 왔다. 올해에도 큰나무·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1,555ha의 숲가꾸기 사업을 통



구봉산 구름다리 전경

해 산림자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 ▲산림경영 선진화를 위한 임도개설

임산물의 반출과 임업의 합리적 경영관리에 기반이 되는 임도시설은 산림재해예방, 지역산업의 진흥 역할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 사업이다.

군은 올해 임도시설사업에 8억6,7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안군 임도밀도를 증대하고 개설되어 있는 임도 174km를 전수 조사하여 노면이 파손되거나 배수가 불량하고 사면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 구간을 보수 정비한다. 이를 통해 임업생산성 향상, 산불·산림병해충 등 재해예방과 방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 ▲등산 환경개선 및 지역권 산림치유원 구축

등산인구 1,800만 시대! 마이산이 조망되는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여 관광객을 확충하고, 진안군을 찾는 전국의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산행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급년 명도봉(주천), 용두봉(상전)의 등산로를 찾고 싶은 명산으로 만들기 위해 500백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에 숲 생태관리인 1명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4년 예비타당성평가를 통과했던 지역권 산림치유원이 2018년 국가 신규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2022년까지 5년간 827억원을 들여 전체 617ha를 핵심시

### 146억원 투입... 나무 심기 숲가꾸기·임도개설 등 추진

설·연구개발·산림숙박·산림치유 등 4개 지구로 개발된다.

진안고원 치유숲,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진안군이 향후 자연치유 분야의 거점지역으로 선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초적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시설과 마을주변경관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향면 상노 마을에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3억8,000만 원을 투자해 마을회관 등 주변경관 개선과 원터 조성을 조성할 계획이다.

###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

대표적 고소득 작목인 표고버섯 재배시설과 임산물 저장 및 건조, 가공시설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에 16억6,9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산양삼·고사리·더덕·도라지 등 임산물 7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식재비와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임산물생산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생표고, 산양삼, 꽃감 등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생산자에게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 임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 ▲녹지공간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녹색일자리 창출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숲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녹지공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동안 관리 미흡으로 이용이 불편했던 도시 숲과 공원 등이 연중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주민 이용률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각종 산림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중장비 등을 다룰 수 있는 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투입함과 동시에 산림 패트론팀을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물 수집 확대에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3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0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및 도시녹화운동 전개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 숲을 확충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안의 관민로 로타리 일원에 녹지공간 1개소와 마령고등학교에 명상의 숲 1개소, 마이산 자전거도로 등 7개 노선에 가로수를 신규 조성한다.

또한 각종 공사로 제거 상황에 처해있는 나무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공공사업에 재활용하는 나무은행을 운영하며, 개인·단체·기업과의 협약 체결로 도시녹화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녹화운동에도 앞장선다.

시가지 사계절 꽃길 조성과 진안군 대표축제인 홍삼축제를 화려하고 정감 넘치게 해줄 국화·팬지 등 15종 50만본의 우량꽃묘를 생산해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군은 전체 면적의 80%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촌 지역이다"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산림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해 숲가꾸기사업 전라북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우수기관', 산촌 8차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역권 산림치유단지가 201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확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진안=우태만 기자



1



2



3



4

1. 나무심기
2. 도시녹화운동
3. 패트롤팀 운영
4. 병해충 방제



행복을 짓는 미래공간 창조

**전북개발공사**

## 전북개발공사는

토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도모합니다.

